한국 가족문제의 유형과 특성

1940-1980년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The Characters and Patterns of Family Problems in Korea

- An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1940s~1980s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전공
강 사 이 인 수*
Major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Instructor : Lee, In-Soo

〈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family problems were explored. What constituted family problems, and how those evolved over the period of drastic changes in the Korean society were examined, by analyzing articles published from the 1940s to the 1980s in the four major national newspapers in Korea. A total of 6542 articles related to family problems in the four newspapers, Chosun, Dong-A, Kyunghyang, and Seoul, were used for the content analysis of this study.

The main categories of family problems were classified as poverty, marital issues, issu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elderly issues, problems in the family as an institution, and the so-called family-lag problem. Each of these categories consisted of several subcategories: The poverty-related problems included the problems caused by difficulty in making a living and instability of living, for example. The marital issues category consisted of conflicts between the couple, unfaithful spouses, domestic violence, divorce, and so on. Issu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included juvenile delinquency, difficulty in bringing up children, child abuse, single motherhood, and underage household heads, for example. The elderly issues included the anxiety over the aging society, support for the elderly,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lienation of the elderly, etc. Problems in the family as an institution consisted of the legal issues in such areas as marriage, succession of the family head, and adoption. Lastly, the family-lag problem included confusion over family values, and conflict caused by the inconsistency between consciousness and actual behavior related to the family or family crisis.

From the 1940s to the 1980s, family-lag was the most common problem (26.2% of the total articles), followed by issu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23.1%), poverty (16.2%), marital issues (15.9%), elderly issues (12.4%), and problems in the family as an institution (6.0%). During the 1940s and the 1950s, poverty was a prominent problem, and in the 1960s, issu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most commonly addressed in the articles. In the 1970s and the 1980s, the family-lag problem was the most frequently addressed.

▲ 주요어(key word): 가족문제(family problem), 빈곤(poverty), 가족지체(family-lag),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Ⅰ. 문제의 제기

무엇을 가족문제로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며, 그 당시의 지배적 사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또한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추용 외, 2002).

우리나라의 가족문제에 대한 인식도 한국의 사회가 겪어온 사회변동에 따라, 가족문제의 유형과 내용, 해결방안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성장을 통한 근대화의 사회변동과 더불어 전통적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가족의식의 변화 등을 초래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문제, 가정폭력문제, 편부모가족 문제, 아동가장가족의 문제, 장애인문제 등의 가족결손에

* 주저자 : 이인수 (E-mail: linsoo@khu.ac.kr)

관한 문제나 노인문제와 성의 자유화로 인한 미혼모와 그 자녀의 문제, 배우자부정 문제, 별거·이혼 등의 가족해체 문제 등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 가족의 변화를 바라볼 때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가족에서 발견되는 많은 문제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의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빈번히 문제시되고 있는 가족간 갈등-부부갈등 및 세대갈등-이나 가정폭력, 청소년 일탈, 노인문제, 여성문제, 이혼 등은 모두가 각기 다른 차원에서 가족문제를 구성하는 사회문제들이다. 그러나, 가족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개 가족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해, 가족문제가 곧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르기까지 사회문제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가족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가족문제의 보다 다양한 양상들을 보다 총체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즉, 가족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전체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가족의 특성을 밝혀내고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전통사회 이후 근대사회로 전이되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가족문제가 드러났는지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통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문제에 초점을 두고 문제의 실태 경향에 관한 연구(김혜선, 1982;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1993, 1994, 1995)이거나 가족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나(함인희, 1993),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이영분·양심영, 2000)을 모색하기 위해 살펴 본 두 연구도 가족문제의 실태를 상담현장에서 나타난 자료나 신문기사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산업화 이후에 나타나는 단편적 시기에 한정되어 있다.

신문기사는 기자의 눈을 통해 굴절되고 있다는 제한점(함인희, 1993)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그 내용이 모든 대중에게 관심있고 다양하며 시의성(時宜性)을 지닌다는 특성(차배근, 1991)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문제의 실태와 유형, 특성이 파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신문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자원에서의 최선책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4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4대 신문을 중심으로 나타난 가족문제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시대별로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194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에 실린 가족문제에 관련된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신문에서 다룬 가족문제에 관련된 기사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가족문제에 관련된 기사의 내용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별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II. 가족문제에 대한 개념정의

1.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의 가족문제

가족문제를 보는 시각은 가족 내적인 인간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사회체계와의 관련성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 즉, 미시적 측면에서의 가족문제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 역기능적인 가족관계,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생활주기 발달과업의 성취가 미진한 것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반면, 후자의 거시적 측면에서의 가족문제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구조와 사회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본다(송성자, 2002).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문제에 대한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상의 문제로써 가족발달주기상에 직면하는 문제라 할 수 있는 가족문제와 이보다 넓은 의미로 가족관계상의 문제를 포함하되 사회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광범위한 가족문제를 구분하고 있다(이경희·이소희, 1993; 김혜선·박혜인·옥선화, 1995). 가족관계상의 문제로는 배우자의 부정, 성격차이, 가치관 차이 등에 의한 부부문제, 자녀의 비행, 학업문제,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자녀문제, 고부갈등, 아내구타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의미의 가족문제로는 아동문제, 노인문제, 편모가족문제, 이혼문제, 가정폭력문제,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등을 들 수 있다.

2. 정상성의 개념을 기초로 한 가족문제

가족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가족문제를 규정하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정상성(normality)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즉, 정상성이란 가족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이거나 기능적인 유용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정상성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어떤 한 측면에서는 정상적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역기능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성의 개념과 기준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송성자, 2002).

우리가 정상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가족은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으로 나뉘어진다. 森岡清美(1975)는 가족문제를 일반가족적 관점과 문제가족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가족적 관점은 가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가족이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가족을 문제시하게 된다. 반면, 일반가족적 관점은 가족생활에 문제가 잠재해 있는 가족과 문제가 나타난 가족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가족문제는 가치판단의 기준에서보다는 사실판단에서 객관적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법칙적으로 인식하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이

영분 · 양심영, 2000).

이영숙 외(1999)는 가족문제는 가족기능 상의 장애나 이러한 장애에 관계없이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족구성원의 특별한 적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같은 맥락에서 유영주(1990)도 가족문제로 가족의 조직이 약화되고 기능상의 장애가 있는 병리가족, 이산가족, 부적응가족, 일탈가족, 가족아노미 현상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족 또는 부적응 가족은 가족 성원의 의식, 태도, 가치관,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상호관계가 결여된 상태의 가족으로 간주한다. 문제를 가진 가족을 단위개념으로 지칭할 때에는 문제가족이란 용어를 쓰는데 집단으로서의 가족의 조직화가 약화되고 기능상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가족을 일컫는 것으로 병리가족, 이상가족, 부적응가족, 일탈가족, 가족아노미라고도 한다. 문제가족의 문제가 악화되어 해결되지 못할 때 가족의 붕괴가 일어나며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난다.

3. 변화에의 지체를 중심으로 한 가족문제

변화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빠르다 해도, 사회의 부문과 문화의 자원에 따라서는 변화의 속도가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서로 속도가 다르게 변하는 부문과 차원들 사이에는 자연히 전진과 지체가 나타나며, 문제는 이러한 지체(lag)가 생기면 우선 혼란이 일어나고, 상호간에 보조를 맞추어 가고자 하는 압박감이 생긴다. 그러므로 서로 적응하려는 데서 긴장이 싹트고 역시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커진다(김경동, 1995).

가족문제 분석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함인희(1993)는 가족문제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가족문제는 가족과 사회의 변화 속도간의 지체현상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본다. 가족이나 사회가 모두 변화되면 '적응,' 사회의 변화에 가족이 미쳐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가족지체,' 반대로 가족의 변화에 사회가 변화되지 못할 때에는 '사회지체,' 다음으로 가족도 사회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는 '가족/사회문제'로 간주한다. '적응'을 제외한 '가족지체,' '사회지체,' '가족/사회문제'를 광의의 가족문제에 포함하고 있다.

둘째, 가족문제를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가족문제는 '일탈적 현상'이 아니라 '규범적 현상'으로 규정한다. 즉, 가족문제는 사회변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것은 개별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가족이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생활의 일부분으로 규정한다. 셋째, '적응'을 제외한 세 가지 유형의 가족문제는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 범주이다. 이는 가족문제에 대한 정의가 고정적이기보다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개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족주기에 따라 가족문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소산(小山, 1975)도 가족문제를 제도와 의식간의 괴리, 의식과 역할행동간의 괴리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가족문제를 문제자체보다는 문제의 배경을 추적하여 일본의 현대가족이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동태를 파악하였다. 즉, 가족문제의 양상이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제도적, 규범적 변혁으로 인한 가족생활 영역에서의 가족원들의 적응의 차이로부터 유래되며, 가족의 적응 결과는 성, 연령, 계층, 지역 등의 요인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영분 · 양심영, 2000).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가족문제는 가족이라는 유기체와 사회라는 환경에서 상호교류상 기능상의 장애를 수반할 때를 의미한다. 즉, 가족체계 내 부부와 아동 · 청소년, 노인의 각각의 유기체가 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관계상의 문제와,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수반되는 빈곤이나, 제도와의 괴리, 변화에의 지체 등 가족이 사회 환경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결손이나 부적응을 뜻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내용분석으로 수행되었다. 내용분석은 주어진 메시지의 특성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느냐를 알아내는데 있다(차배근, 1982).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신문으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이다. 동아일보는 1920년 4월에 창간되었으나 1940년 8월에서 1945년 11월까지의 폐간되었다가 1945년 12월에 복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기사내용으로는 1945년 이후부터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일보도 1945년 11월 23일 복간된 이후의 기사내용을 다루었으며, 경향신문은 1946년 10월과 서울신문은 1945년 11월 창간된 이후의 기사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사회 변화상 해방과 한국전쟁의 위기와 변혁의 과정에서 혼란한 사회변동기에 놓여있던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전쟁 이후 활발하게 산업화를 진척시키는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의 신문기사에 나타나는 가족문제의 내용이 분석되었다.

2. 분석유목

본 연구에서 분석유목은 선행연구의 가족문제의 개념 정의(송성자, 2002; 유영주, 1990; 함인희, 1993; 이경희 · 이소희, 1993; 이영분 · 양심영, 2000)에 대한 고찰에 토대로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된 개념에 따라 기사제목과 내용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가족학 전공 학자 5인이 유목분류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중복되는 기사를 스크린한 뒤, 기사의 제목을 중심으로 분류화하였고, 분석자료의 신뢰도는 각각의 분석 일치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총 6542 건을 대상으로 다섯 사람이 살펴 본 유목의 일치도에 관한 신뢰도 계수는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사의 주제분류유목과 각각의 하위유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가족문제 관련 기사 주제유목별 빈도분포

주제유목	하위영역	N(%)
빈곤문제	생활고, 생활 불안정	1061(16.2%)
부부문제	부부간 갈등, 이혼, 배우자 부정, 부부폭력	1044(15.9%)
아동·청소년 문제	청소년 일탈행위, 자녀양육, 아동학대,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1517(23.1%)
노인문제	노령화, 노인부양, 고부갈등, 노인소외	814(12.4%)
가족제도 문제	법제상의 갈등/동성동본불혼, 호주제, 상속제, 양자제	386(5.9%)
가족지체 문제	가족가치의 혼란, 가족상 변화, 가족의식과 행동간의 괴리, 가족위기	1720(26.2%)
합 계		6542(100.0%)

가족문제 관련 기사 중 주제유목에 따른 하위영역별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문제 유형에는 생활고, 생활불안정으로 인해 가족이 결손 혹은 해체되는 위기를 겪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둘째, 부부문제 유형은 부부간 갈등과 이혼, 배우자 부정, 부부폭력 등의 내용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아동·청소년 문제 유형은 청소년 비행과 범죄 등의 일탈행위, 자녀양육, 아동학대, 미혼모, 소년소녀가장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넷째, 노인문제 유형은 노령화 사회의 도래로 위기 의식을 고양하는 내용이나 그로 인한 노인부양에 관한 내용, 노인소외, 고부갈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섯째, 가족제도상의 문제로는 가족제도의 여러 영역(혼인, 상속, 호주, 양자 등)에서 법제상의 갈등을 갖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여섯째, 가족지체의 문제 영역에는 가족상의 변화, 가족가치관의 혼란, 가족의식과 행동의 괴리로 인한 문제, 그로 인해 직면한 가족위기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3. 분석단위

분석단위는 기사(item)로서 1940년대 565건, 1950년대 659 건, 1960년대 792 건, 1970년대 1018 건, 1980년대 3508 건으로 총 6542 건의 기사가 분석되었다. 4대 신문에서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주로 한 신문에서 내용이 선정되었을 경우, 중복된 기사내용은 제외되었다. 또한 한 신문에만 기사화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의 기사 빈도가 시대별 문제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용분석은 일차적으로 신문 기사 중에서 가족문제에 관한 기사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다음으로 분석유목에 따라 분류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는 SPSS window 용 Ver. 11.0을 이용하여 각 분석유목 및 하위영역별로 해당하는 기사 건수의 빈도와 백분율을 측정하였다. 유목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Chi-square 검증을 하였다.

Ⅳ. 내용분석 결과 및 해석

1. 가족문제의 개괄적 특성

194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4대 일간지에 실린 가족문제에 관한 기사를 주제유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과 같다.

전체 6542건의 기사 중에서 가족의 지체로 인한 문제 유목이 1720 건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 유목으로 총 1517 건(23.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빈곤문제가 1061건으로 16.2%, 부부문제의 주제유목이 총 1044건으로, 15.9%를 차지했고, 노인문제는 814건으로 12.4%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나타난 주제유목으로는 가족제도상의 문제 영역으로 5.9%(총 386건)로 나타났다.

가족문제의 유형별, 시대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차이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문제의 유형과 특성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주제유목별 가족문제의 특성

1) 빈곤문제

빈곤문제는 전체 6542건의 가족문제 유목 중에서 1061건으로 16.2%를 차지했다. 대체로 사회가 불안정하고 곤궁하여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자녀들이 고아나 부랑아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실태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또

<표 2> 가족문제 관련 기사의 주제유목별, 연대별 빈도분포 단위: 빈도(%)

주제유목	하위내용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합 계
빈곤문제	생활고, 생활 불안정	226(40.0%)	339(51.4%)	181(22.8%)	67(6.6%)	248(7.0%)	1061(16.2%)
부부문제	부부간 갈등, 이혼, 배우자 부정, 부부폭력	133(23.5%)	48(7.2%)	43(5.4%)	70(6.8%)	750(21.3%)	1044(15.9%)
아동·청소년문제	청소년일탈행위, 자녀양육, 아동학대,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140(24.7%)	179(27.1%)	228(28.5%)	224(22.0%)	746(21.2%)	1517(23.1%)
노인문제	노령화, 노인부양, 고부갈등, 노인소외	25(4.4%)	45(6.8%)	179(22.6%)	249(24.5%)	316(9.0%)	814(12.4%)
가족제도 문제	법제상의 갈등/동성동본불혼, 상속제, 호주제, 양자제	23(4.0%)	22(3.3%)	46(5.8%)	69(6.7%)	226(6.4%)	386(5.9%)
가족지체 문제	가족가치의 혼란, 가족상 변화, 의식과 행동의 괴리, 가족위기	18(3.1%)	26(3.9%)	115(14.5%)	339(33.3%)	1222(34.8%)	1720(26.2%)
	합 계	565(8.6%)	659(10.1%)	792(12.1%)	1018(15.6%)	3508(53.6%)	6542(100%)

χ^2= 1881.3, df = 20, ***P <.001

한, 물가상승과 경제결핍으로 인한 생활위협이나 생활난으로 온 가족이 동반자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실직이나 생활고를 비관하는 가장의 현실에 대해 언급한 기사들이 많았다. 한편, 도시 영세민의 생활고나 빈민가구의 생활상에 대해서 기사화한 내용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2) 부부문제

부부문제 영역은 194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한국의 가족문제로 드러났다. 한편, 결혼을 과경으로 모는 이혼을 금기 혹은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에서부터 가정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없다는 중년의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혼에 대한 실태와 이혼관의 변화, 이혼 후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들이 부부의 이혼문제에 있어서 다루어졌다.

3) 아동·청소년문제

아동·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전체 가족문제의 23.1%로 가족지체에 관한 문제(26.2%)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굶주림으로 버려진 아이들, 거리의 소년, 버림받은 아이들의 세계 등, 고아나 부랑아의 실태에 관한 것이나 가정의 혜택과 보호없는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과 청소년 비행의 실상과 급증에 대한 우려의 내용이 많았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지나친 배금주의와 무관심이 빚은 자녀의 탈선과 반대로 지나친 과잉보호로 그릇 치는 자녀의 인성 문제, 조기교육의 열풍과 문제점,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취업주부의 증가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자녀의 양육과 탁아문제의 실상을 문제로 지각하거나 반대로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는 기사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미혼모의 증가와 빈곤과 가장의 실직, 부모의 별거와 이혼으로 소년소녀가장의 실태도 아동과 청소년문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로 등장하였다.

4) 노인문제

전체 가족문제 중에서 노인문제는 814건으로 12.4%의 비율로 나타났다. 점차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령화사회에서 드러나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노인의 지위하락과 노인의 건강약화, 노인의 소외 등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으며 가족과 관련하여 문제로 지각되는 내용은 고부갈등이나 노인부양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5) 가족제도상문제

가족제도상의 문제 영역은 가족의 혼인, 상속, 양자, 호주 등의 가족제도에 있어서 법제상의 갈등을 대부분 다루고 있다. 1958년에 개정된 가족법이 1962년과 1977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1989년 대폭 개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시대에 팽배해 있는 전통과 근대의 가치의식의 대립이 문제로 가시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가족제도상의 문제는 5.9%로 나타났으며, 혼인제도에 있어서는 간통제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부부간의 문제나 동성동본불혼으로 야기되는 혼인, 자녀양육 등의 문제들에 관한 것이었다. 호주제도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제와 호주승계에 따른 갈등과 혼란을 다루고 있으며, 상속제도에 있어서는 이혼 시 부부재산별산제 정립이나 가족법 개정으로 재산상속에서 있어서의 가족구성원들간의 갈등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다.

6) 가족지체문제

가족지체문제의 영역은 위의 가족문제에 대한 개념에서처럼, 제도와 의식과 관행의 지체, 의식과 역할행동간의 괴리 등과 같이 가족문제의 양상이 가족원들의 적응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194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나타나는 가족문제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26.2%)을 차지했다.

변화의 진통을 겪는 현대 가정의 문제, 부부의 역할에 관한 규정, 결혼동기나 혼인행태에 관한 문제점 등에 관한 기사들이 많았다. 이러한 근대적 의미의 가족개념과 전통적 의미의 가족개념간의 갈등이 부부의 역할규정이나, 부부관, 결혼관 이외에도 효의 의미, 부모관, 가족공동의식 등에 있어서 의식과 역할행동의 변화에 상호간에 지체하는 현상을 드러냈다.

3. 시대별 가족문제의 특성

1) 1940년대의 가족문제

1940년대는 일제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 말기로서 파행적 자본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내선일체화의 정책에 따라 정치적 주권의 말살은 물론이요, 고유의 한국문화 또한 억압 속에서 명맥을 유지할 뿐이었다.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위한 토지수탈과 조세수탈은 농민층을 강제로 분해시켜 소작농을 임금 노동자화 시키고 나아가 농민의 몰락을 초래하였다(박현채 외, 1985). 따라서 국민의 생활이란 피폐하기 그지없었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가족 내 문제들은 대부분이 빈곤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40년대의 가족문제에 관한 기사는 565건으로 총 6542건 중 8.6%를 차지하였다. 그 중 빈곤문제가 40.0%, 다음으로 아동·청소년문제(24.7%), 부부문제(23.5%)가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1940년대 가족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노인문제(4.4%)이나 가족제도상의 문제(4.0%), 가족지체에 관한 문제(3.1%)들은 극소수의 비율로 나타났다.

> 추위와 기아에 못 이겨 오고가는 행인의 소매를 붙들고 구걸행위를 하는 소년들의 대부분은 극빈자와 전재민의 자녀들로 세인들의 동정을 사고 있다. 전국 도상에 있어서 급격히 늘어가는 소년범죄를 미연에 막으려는 동시에 이들을 보호하고저 해방이래 서울로, 서울로 혹은 이북에서 혹은 중국에서 혹은 일본에서 모여든 사람들.. 그들은 또한 자기처지대로 전담을 빼앗기고 또는 집을 잃고

> 또는 식구가 헤어져 다 각기 삶의 길을 구하여 이미 안전하고 고투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운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戰災여성들은 거리로 장터로 나아가 억세고 굳세게 싸워나가는 갸륵한 모습을 보게 된다(조선일보, 46. 10. 03일자).

위의 기사 내용처럼, 대부분이 빈곤과 기아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어 아동들은 고아나 부랑아의 처지로 거리를 전전하게 되었고, 해방이 되면서 중국과 일본 등의 나라에서 피란과 독립운동, 징용,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이주했던 동포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도시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제한된 자원에 인구의 증가 등, 피땀 흘려도 살기는 더 어려운(경향신문, 46. 10. 3일자) 생활고나 물가상승, 경제결핍으로 인한 생활위협(동아일보, 40. 1. 5일자) 등의 불안정한 생활상을 다루고 있다. 부부문제의 영역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해체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혼인전날에 사랑의 도피행각(조선일보, 40. 7. 9일자)을 벌인 경우나,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부인의 자살(동아일보, 40. 8. 1일자) 등과 같이 사건중심의 내용들이 가시화되었다. 다음으로 부부의 도(道)에 위배되는 것으로 당시의 시대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자식 낳지 못한다고 소실 얻겠다는 남편의 경우(동아일보, 40. 5. 4일자)나 아내가 무식해서 이혼을 청구한 경우(동아일보, 40. 1. 30일자)에서부터 남편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이혼을 제기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법률 창구에서 보는 이혼의 실태도 다루고 있다.

노인문제나 가족제도상의 문제, 가족지체에 관한 문제는 극히 적었는데, 교파가 틀려서 고부간에 갈등을 갖는 경우나 상속으로 인한 가족 내 불화, 모성애나 여성상에 대한 가치에 관한 내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1940년대에는 사회가 불안하고 피폐한 상황에서는 가족내 인간관계의 부조화와 갈등보다는 생존에 관련된 빈곤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Maslow(1968)의 인간의 욕구위계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간의 생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더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1950년대의 가족문제

1950년대는 해방의 환호와 함께 분단의 음영이 뒤따랐는데, 분단과 관련된 해방직후의 정치적 혼란은 반봉건적 식민지 잔재를 청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모든 발전지향의 가치가 애국이라는 반일적 민족독립 지향성의 가치로 전환되어 온 우리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전근대적 가치체계들에 대한 비판 과정없이 사회변동은 계속되었던 시기이다(박영신, 1983). 경제적으로는 한국전쟁의 파괴적 결과가 미국의 원조 정책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는 대외의존성을 강화시켰고 정치적으로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권위주의 타성을 키워나갔다(김성국, 1985).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가족은 '빈곤과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곤으로 빚어지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의 가족문제 중 과반수(51.6%)이상이 빈곤문제이었으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문제(27.4%), 부부문제(6.8%), 노인문제(6.8%), 가족지체문제(3.5%), 가족제도상의 문제(3.3%)의 순(順)으로 나타났다. 전쟁으로 인한 빈곤과 굶주림이 팽배해지게 되면서 심각한 생활고는 자살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자살도 대부분은 가족일체의 의식에 의해 가족동반으로 이루어졌다. 보릿고개의 가난을 견디다 못해 막내 딸 등에 업고 한강에 투신자살하거나, 온 가족이 농약을 함께 먹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터에서 많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죽어갔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려 전쟁고아구제사업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열악한 환경으로 좀도둑이 많아지게 되었다.

> ○○○ 시내 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대의 판자집 철거가 본격적으로 단행되고 있어 피난민들은 갈 곳이 없어 철거당한 빈터에서 추위에 떨며 노숙하고 있는 실정이다....거리에는 거처없이 누더기를 쓰고 다니는 어린이들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이라고 하지만 부모도 친척도 의지할 곳 없이 양철통 하나를 유일한 재산으로 삼고 거리로 헤매는 어린것들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두고 보아야 할 것이냐(조선일보, 1956. 6. 19일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과 혼란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이 심하게 흔들리고 가족단위 중심의 생존이 개인의 삶의 목표가 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가족은 더욱 인위적인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전쟁터로 나가서 행방불명된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와 자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사회적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역할은 축소되고 가족의 영역을 책임진 어머니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집단의 대외적 대표권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의 가장권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 전쟁과 빈곤으로 생존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부부문제는 1940년대(23.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6.8%)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1960년대의 가족문제

1960년대에 들어와 빈곤문제는 1950년대에 비해 현격히 감소(22.8%)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 문제는 여전히 비슷한 비율(28.5%)로 나타났고, 1940년대나 1950년대에 비해 노인의 문제가 급부상(22.8%)함을 알 수 있다.

> 보건사회부와 가족계획협회는 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합리적 산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농어촌과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는 아직까지도 비위생적인 처리에 의한 영아사망율이 높아 모자보건의 문제가 많음을 밝혔다(경향신문, 1967. 5. 13일자)

>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8일 하룻 동안 서울 시내에서 만도 일가족 4명이 집

> 단음독 하는 것을 비롯 10건의 자살사건이나 미수사건을 볼 수 있다. 자살동기를 보면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 부채, 공부못함에서 오는 좌절감등이 원인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생활고가 가장 두드러진 원인이다(서울신문, 1968. 5. 9일자)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공업화는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었고 농촌에 대한 투자와 농업개발의 비교우위를 인정하지 않은 개발정책으로 이촌향도의 인구이동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도시화는 핵가족화를 촉발시켰고, 문명의 발달로 연장되는 노인의 평균수명도 농촌에서 토지를 지키는 노인의 소외와 고독의 문제, 나아가 부양의 문제까지도 야기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해, 1960년대에 들어 인구억제정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고, 한편으로 산업화의 진행 속에 갈등하는 전통과 근대의 의식간의 차이로 인한 가족지체의 문제가 서서히 증가(14.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초에 '빈곤으로부터 풍요'라는 고도성장의 슬로건은 국민의 개발의욕을 일깨웠고, 경제성장은 양질의 노동을 노동집약산업에 고용하여 저임금으로 활용한 노동정책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노동력 충원은 국가나 기업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지지체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팽창으로 이러한 지지체계도 약화되었으며 가족의 생존과 복지는 개별 가족의 역량을 벗어나는 문제가 되었고, 가정생활과 가족부양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이를 위협하게 되었다(노영주 외, 1999).

예를 들어, 빈곤의 문제가 다소 감소하였다해도, 생활고와 불안정으로 가족동반 자살하는 사건들이 여전히 가시화되었고, 전쟁과 빈곤으로 인한 편모가 된 여성의 가난한 삶도 문제화되었다. 당시 모자가정 54만명 중 68%가 요보호대상으로 기아와 집단 자살 등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노영주 외(1999)의 지적처럼, 이 시대의 모든 사회문제가 가족문제로 연결되며 가족문제 역시 사회문제화 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노동력 배양 및 공급기능을 가정에 크게 의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부양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미루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 1970년대의 가족문제

1970년대 들어서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가족문제의 영역은 가족지체로서 33.3%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문제 24.5%, 아동청소년 문제 22.0%, 부부문제 6.8%, 가족제도상의 문제 6.7%, 빈곤문제 6.6%의 순으로 나타났다.

> 1970년대 이후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그늘에 가려져 소외되어 온 도시빈민층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가 대부분이 맞벌이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거의 생활이 어렵고, 아침부터 수십 명이 몰려드는 화장실문제, 비탈진 골목길을 청소차의 딸랑 소리에 맞추어 언덕 아래로 달려가야 하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비탈길을 연탄재를 날라야하는 고역을 겪고 있다. 달동네의 낮은 어린이들 세상이 되고 만다.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자녀양육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여성개발원이 여성 직업개발프로그램으로 1985년 처음 시도한 가정 탁아모 훈련은 탁아의 전문성과 환경적 열세조건으로 문제가 많으나 후속사업이 전개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어느 시대나 빈곤은 자녀문제를 야기되어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치되어 생활하게 되고 적절한 교육의 부재는 다시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모습을 다음의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 남편과 몇 년 전 사별한 김씨 부인은 자신은 무학이지만 자녀들 교육에 남달리 힘을 써왔다고 자부한다. 자식들 잘 가르쳐 달동네에서 벗어나게 하려던 김씨의 뜻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A동 달동네 14세대 중 전원이 막노동으로 생계를 잇고 있고 회사원이나 월급생활자는 한 사람도 없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한 세대도 없다. 즉, 교육은 의욕뿐 '빈곤의 대물림'하고 마는 셈이다. 진학을 포기한 청소년들 열등감에 탈선을 일삼아 3-4명씩 짝을 지어 본드를 마시거나 부녀자를 희롱하고 한다(조선일보, 1977. 4. 8일자).

한편으로, 밀려난 효의 회복을 위한 구호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늙는다는 것은 서러운 것으로 노화에 대해 지각하였고, 떨어진 '우상'으로서의 노인에 대한 인식 등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노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다. 부부문제로는 산업화의 역군으로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춤바람이 나서 캬바레를 드나드는 흔들리는 주부상을 호되게 비판하는 내용들도 주목된다.

그러나, 1970년대 가장 많은 가족문제의 주제유목은 가족지체에 관한 것이었다. 근대와 전통의 가치 공존 속에 1940년대나 1950년대와 같이 사회가 불안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 그들의 생존전략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가족 규범'이 빠르게 확산되어 구조는 물론, 질적인 변화로서의 '핵가족화'가 일어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이정옥 · 한영혜, 1995). 이러한 변화가 1970년대 이래로 노인 부양, 부부갈등, 부모자녀간의 세대차 등 여러 측면에서 가족문제로 노정되어 왔다. 한국 가족의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가족원들의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자주 해결책으로 거론되어 왔다. 가족내 청소년의 문제나 노인문제, 고부갈등에서 부부문제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상대방을 개인으로서 인정해 주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되면서 문제의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고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면, 노인문제도 '자식이 자신의 분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을

자신과 분리하여 자식에 대한 몰입을 억제하면서 독립적으로 사는 방식이 해결책의 하나로 권고되었다. 부부갈등도 같은 맥락에서 처방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70년대 이래로 한국 가족에서의 삶은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서선희, 1998).

적어도 1970년대에는 가족의식에 있어서 위의 지적처럼, 개인이 가족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의 주체로서 인식되었고,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과 행동의 괴리에서 오는 지체의 문제들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5) 1980년대의 가족문제

1979년 정치적 혁명 뒤에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이하게 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가족의 혼란도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다.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을 국정의 최고 과제로 설정한 제 5공화국은 삼청교육, 언론사 통폐합, 지식인 해직 등의 사회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사회정책들을 내세웠고, 이것은 부도덕한 정권의 명분찾기와 정권기반의 공고화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 속에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수지도 흑자도 반전된 것은 5공화국의 치적으로 꼽히고 있다(노경채, 1998). 물론, 자립경제의 실현과정과 거리가 멀어 1990년대 말 IMF사태의 대량실업과 기업 도산으로 가장의 실직과 가족의 해체 위기를 야기시키는 동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 해도, 1980년대 들어서 가족이 어느 정도 빈곤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향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자 노태우정권은 '권위주의의 청산,'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문민정부로의 변신을 모색했으나 물가안정, 농어촌문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사회기강마저 무너져 인신매매, 가정파괴, 유괴살인 등의 비인간적인 범죄 등이 늘어나게 되었다.

1980년대의 가족문제는 가족지체의 문제가 34.8%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부문제 21.2%, 아동청소년문제 21.2%, 노인문제 9.0%, 빈곤문제 7.1%, 가족제도 문제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문제는 1980년대 들어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 현대핵가족의 특성은 가장의 역할이 약화되고 주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진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변한 외적조건에 실제 가치관이 따라가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한국가정의 현주소이다. 부부의 역할변화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대화단절, 부모자식간의 소외, 생산연령에서 종속연령에 접어든 노인들의 부양문제, 자녀들이 성장한 후 생기는 주부의 유휴노동력문제 등이 그것이다(조선일보, 1981. 5. 2일자).

> 최근 10-20년 동안에 급증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이혼증가를 포함한 결혼생활 불안정의 문제들은 오늘날 한국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원칙적으로 성취지향성, 보편성, 합리주의, 능률주의 등 현대적 사회발전의 원리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가족에 대해서는 전통사회나 거의 다름없는 관계와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가족을 둘러싼 근본적 모순과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과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족 스스로가 사회변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여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를 벗어나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원칙과 긴장을 종합하여 가족을 일차적인 공동체로 재수립해야 한다.....남편의 성공을 곧 자신의 성공으로 보고 인격적 자립의지 약한 것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다(동아일보, 1981. 4.15일자)

1980년대에 빠르게 확산된 집합적 주거 양식과 자동차의 보급, 가족단위의 여가문화 발달 등 새로운 생활양식도 핵가족적인 정체성과 규범의 확산 및 강화에 기여했다. 나아가, 이러한 규범과 생활양식 자체가 핵가족 규범을 재생산,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가족 형성, 소규모 가족, 부부관계의 중시, 성역할 분업,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 강조 등의 서구 근대적 의미의 가족개념이(이정옥 · 한영혜, 1995) 행동과 지체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가족문제가 나타났다.

부부문제의 경우는 여권신장의 물결을 타거나, 병든 성윤리, 결혼관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급증한 이혼에 관한 것이나, 절대적으로 가장에 복종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유교문화 속에 은폐되어 있는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들이 주된 문제로 나타났다.

> 이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더 이상 사랑, 존경, 순종, 효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상태다. 산업사회가 정착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될수록 지금까지의 유교적 가치관이 더 버티지 못하고 있다. 허물어져 가는 빈자리를 채워 줄 새로운 가치관은 세워지지 않고 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새롭고도 다양해지는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쩔줄 모르는 사태들이 늘고 있다. 공부 잘해 대학가는 게 효도인 풍조와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임을 맹신할 만큼 유별난 유대감을 갖는 어머니, 아버지를 밤늦게까지 잡아두는 산업사회가 함께 이루는 '빈 조개껍질 가족의 불협화음'이다(조선일보, 1989. 10. 22일자).

위의 기사내용처럼, 아동청소년문제 유목에는 부모자식간에 깊어만 가는 갈등의 골이나, 자녀수 감소로 인한 부모의 과잉보호, 부모의 극성 속에 표출되는 조기교육 열풍은 가정교육의 부재 혹은 소홀로 오히려 정서불안과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우려하는 내용이 많았다. 문제자녀 뒤에 문제부모 있으며, 점차적으로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고, 영세민촌의 빈곤가족 자녀들은 여전히 좁다란 골목길을 놀이터 삼아 양육의 부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노인문제는 남편과 자식 외엔 모두가 남(조선, 86. 11.12일자)이라는 기사에서 핵가족지상주의가 야기하는 노부모 소외현상을 지적하거나 시집살이보다 며느리살이 더 어려운 고부갈등의 현상과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지위의 약화, 취로사업에 동원되는 노인들의 열악한 취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다.

광복후 한국의 사회변동을 검토하면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에 관한 고찰에서 김경동(1995)은 구조와 조직의 폭증과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규범과 일상적 관행에는 여전히 전통적 요소가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권위에 대한 존경심은 약화되었지만 권위주의적 의식과 인정주의와 연고주의는 보편적으로 남아 있고, 핵가족 중심의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가족이기주의가 만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버지는 가부장제의 절대적 권위에서 '돈버는 존재'로 전락함을 문제화하며, 흔들리는 부권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년기 남성의 위기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열쇠 3개'와 '사(十)자 사위'를 맞바꾸는 물질만능주의가 가족의 혼인의식을 병들게 했음을 안타까워하는 기사들이 많았다. 주부의 역할에 대한 규정은 가족이 정서적 유대관계, 즉 사랑에 기초한 집단이라는 근대적인 관념이 도입되면서 가사노동은 가족에 대한 주부의 사랑과 정성이 깃든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다(이정옥 · 한영혜, 1995). 이러한 인식은 '도시화-산업화된 사회에서 주부들이 해야할 역할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주부는 가족들이 자신을 개발하고 나름의 정서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가정생활의 주기변동에 대처한다거나 가정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문화의 정통성을 살리는 일 또한 주부의 역할이다(조선일보, 1983. 8. 23일자)' 라는 기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지체의 문제가 급증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체험한 가족체계가 가족구조면에서, 기능적으로, 이념상 혼란과 갈등을 드러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 사회에서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입형태의 변화는 해당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와 사상, 사회경제적 상황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사료된 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되어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가족문제가 드러났는지 그 특성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것이었다. 194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에서 나타난 가족문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각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 기초한 가족문제의 개념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문제의 주제유목이 6개 영역으로 분류되었는데, 빈곤문제, 부부문제, 아동 ·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가족제도 문제, 가족지체 문제가 그것이다. 빈곤문제의 유목에는 생활고나 생활불안정으로 인한 가족문제들이 포함되었고, 부부문제에는 부부간 갈등,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 가정폭력의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아동 · 청소년문제의 주제유목에는 청소년의 일탈행위, 자녀양육, 아동학대, 미혼모, 소년소녀가장의 문제가, 노인문제에는 노령화, 노인부양, 고부갈등, 노인소외 등이, 가족제도 문제에는 혼인, 상속, 호주, 양자 등의 가족제도 영역에서 나타나는 법제상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체의 문제에는 가족가치의 혼란, 가족상의 변화, 의식과 행동의 괴리로 인한 갈등이나 가족위기의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 1940년대에서 1980년대 이르기까지 총 6542 건 기사내용의 가족문제 중 가족지체의 문제가 26.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 · 청소년문제가 23.1%, 빈곤문제가 16.2%, 부부문제가 15.9%, 노인문제가 12.4%의 순(順)이었고 가족제도상의 문제가 5.9%로 가장 적었다. 시대별로는 1980년대가 전체 가족문제에 관한 기사 건수의 53.6%를 차지해 가장 문제가 많은 연대이었고 다음으로는 1970년대가 15.6%, 1960년대가 12.1%, 1950년대가 10/1%, 1940년대가 8.6%의 순(順)으로 나타나 194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가족문제는 시대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문제의 유형은 시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1940년대, 1950년대의 가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빈곤문제(각각 40.0%, 51.4%)로서 사회의 격변 속에 가난으로 인한 생활고와 생활의 불안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러한 빈곤문제는 고아나 부랑아, 자녀양육의 부재 등의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었다. 1960년대 들어와 빈곤의 문제는 다소 줄어들었으나(22.8%), 노인의 문제가 크게 부각(22.6%)되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가족계획사업 추진으로 인한 저출산 정책, 많은 인구의 유입과 도시로의 이동이 맞물리면서 노인의 문제가 급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1980년대 들어서면서 가장 두드러진 가족문제는 가족지체의 문제(33.3%, 26.2%)이었다. 근대와 전통의 가치 공존 속에 가족은 급격한 변동에 적응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체되는 현상을 드러낸다. 가족구조에 있어서 핵가족화와 질적인 의미의 핵가족 규범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지 않았고, 가족의식에 있어서도 개인주의의 서구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족주의 가치가 괴리되면서 부조화를 상정하게 된다.

이상의 한국 가족문제에 관한 시대별 고찰의 결과 가족지체의 문제는, 현대 한국사회의 핵심적 특질이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 탈현대적 요소까지 공존한다는 장경섭(2000)의 지적처럼, 이를 각각 다르게 경험한 세대들간에 심각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양한 가족이념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우발적 다원성의 문제, 전통과 근대의 괴리, 의식과 행동의 갈등, 규범과 관행의 괴리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흔히, 근대적 사고에 못 미치는 진부한 전통적 가치나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가족주의의 탈피를 주장하는 것으로만은 가능하지 않다. 가족의 개체화 못지 않게 공동체적 가족도 배려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빈곤문제를 포함한 가족문제,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부부, 아동청소년, 노인문제의 순환적 인과성의 성격에서 가족문제는 결코 가족 자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사회문제가 결코 가족이라는 단위를 떠나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문제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도록 원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족문제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기대효과는 사회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문제들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가족의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해결을 통해 개개인의 인권이 보호받는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접 수 일 : 2002년 9월 15일
☐ 심 사 일 : 2002년 9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6월 25일

【참고문헌】

김경동(1995). 한국사회변동: 과거 50년, 미래 50년. **한국사회학회,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8.**

김성국(1985). **세계체제와 한국의 정치·경제**. 한국사회의 재인식 1. 서울: 도서출판 한울.

김혜선·박혜인·옥선화(1995). **가족관계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노경채(1998). 역대 대통령의 '역사' 점수. 한국역사연구회 편,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역사비평사.

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1999).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73-183.

박영신(1983). 한국사회발전론 서설,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 사회연구소.

신용하·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서울:지식산업사.

서선희(1998). 21세기 사회와 한국 가족. **한국가정과학회, 미래사회 환경과 가정학. 1998년 총회 및 학술대회,** 74-89.

손정영(1997). 한국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족치료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5(4),** 173-183.

송성자(2002).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홍익제.

유영주 외(1990).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이경희·이소희(1993). **가족복지.** 서울: 형설출판사.

이영숙·박경란·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서울: 학지사.

이정옥·한영혜(1995). 해방후 한국가족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5-140.

장경섭(2000).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양성: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2000년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81-83.

정창수·정기선·차종천(1997). **산업화 과정에서의 한국가족의 실태와 전망.** 서울: 집문당.

조추용 외(2002). **가족복지론.** 서울: 동인출판사.

차배근(1982). **커뮤니케이션학개론.** 서울:세영사.

함인희(1993). 산업화에 따른 가족문제의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학회 1993년 전기사회학대회자료집,** 73-81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4).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도서출판 하우.

한국가족학회 편(1995). **한국 가족문제-진단과 전망.** 서울: 도서출판 하우.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3).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도서출판 하우.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5). **맞벌이 가정의 가족문제.** 서울: 도서출판 하우.

한국역사연구회(1998).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역사비평사.

황숙연(1988). **한국의 가족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Maslow, A. H.(1968). 이혜성 역, **존재의 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